

2015. 6. 22. ~ 6. 28. 주간

39
VOL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축산물 재배·출하·가격 동향

풋고추·수박 재배 동향 및 축산물 과채 가격 동향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매실 수급 동향

전남 시·군 농정 동향

해남 블루베리 맛 보세요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흰우유 중국 수출, 1년 만에 재개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전남농기원, 여주 농가틈새 소득 유망작목 육성

정책동향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 우열을 가린다!

해외 농업정보

중국, 농가지원정책 점검필요

고소득 농업사례

전남 시설재배 장미농가 소득 가장 높아



전라남도
Jeolla 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5~19mm)보다 많음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풋고추 6월 정식면적 작년과 비슷, 7월은 증가 전망
- 수박 정식면적 감소세 전망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축 산 물 : 돼지, 육계

- 돼 지 : 등급판정 마릿수 감소로 6월 지육 가격 5,900~6,100원/kg 전망
- 육 계 : 도계 마릿수 증가로 6월 육계 산지가격 1,300~1,500원/kg 전망

▶ 과 채 : 오이, 애호박

- 오 이 : 취청오이 6월 가격은 출하량 적어 작년보다 높은 상품 50개에 1만 4천~1만 6천원 전망
- 애호박 : 6월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줄어 작년보다 높은 상품 20개에 1만~1만 3천원 전망

☼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전라남도)

▶ 전남 양파·마늘·매실 수급 동향

- 양 파 : 재배면적은 전국의 51%인 9,171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966원/kg(전년 382원 대비 153% ↑)
- 마 늘 : 재배면적은 전국의 26%인 5,425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3,800원/kg(전년 2,680원 대비 42% ↑)
- 매 실 : 재배면적은 전국의 69%인 3,937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23,687원/10kg(전년 16,534원 대비 30.2%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전라닷컴, 무등일보)

- ▶ 해남 블루베리 맛 보세요
- ▶ '전국 1위' 대숲맑은 담양쌀 진가 발휘
- ▶ 나주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 호평
- ▶ 목포시 농업지원센터 삼향동주민센터에 등지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 흰우유 중국 수출, 1년 만에 재개
- ▶ 우리 밤, 대만시장서 수요 지속 증가
- ▶ aT, "해외 농식품 시장 정보 제공해 드립니다"
- ▶ 농식품부, 중국 홈쇼핑 채널 통해 농식품 수출확대 박차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전남농기원, 여주 농가틈새 소득 유망작목 육성
- ▶ 관비 재배 시설애호박, 생육 단계별 양분 관리 기술 개발
- ▶ 단감나무 여름전정 단감 품질 높인다!
- ▶ 무더운 날씨 돈사 습도 위생 관리 필수
- ▶ 계속되는 가뭄에 따른 농작물관리 요령

☼ 정책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 우열을 가린다!
- ▶ 국립종자원 전남 제2정선센터 부지 영암군으로 확정
-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
- ▶ “2025년 GAP 농산물 재배 면적 50%로 확대”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중국, 농가지원정책 점검필요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강우로 인한 미국 남부의 겨울 밀 수확이 다소 지체되고 있고, 수확량이 11%를 예년의 절반 수준임
 - 옥수수 선물가격은 지난주 미국 중서부와 남부에 내린 큰비로 등급 하락이 예상되어 거래 간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예측
 -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농무부의 곡물 등급 하락 발표와 파종둔화 소식에 상승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 ▶ 전남 시설재배 장미농가 소득 가장 높아
- ▶ 새콤달콤한 패션프루트<아열대 과일>...부농의 꿈 '새록새록'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간(변경전) : 3. 2. ~ 6. 15. → 7. 10.일까지
- 밭직불금 중 밭동계작물 신청완료(5.22.)
- 쌀·조건불리직불금, 밭하계작물에 대해 신청 기간 연장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중 실제 경작자
- 지급단가(ha당)
 - 쌀직불금 100만원, 밭고정 25만원, 밭농업 40만원, 밭농업이모작 50만원

▶ 제1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평가일정 : 시군예선(6.30한) → 도 예선(7.20한) → 본 대회(8월말)
- 응모대상 : GAP 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농산물, 임산물)
- ※ 개별농가 단위 또는 집단 인증 농가 신청 가능
- 심사방법 : 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서류+발표) → 중앙 우수사례 경진대회
- 시상 및 시상금 : 10점(대상 1,500만원, 금상 2, 각 300만원, 은상 3, 각 150만원, 동상 4, 각 100만원)
- 심사내용 :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창의성, 청결성, GAP 이해도, 사업성과 및 자립도, 지속가능성, 경쟁력, 파급효과 등

▶ 2015년 남도 우리 술 품평회 개최

- 일시/장소 : 7.10.(금) 11:00~17:00 / 도청 수리채
- 위탁기관 :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
- 선발부문 : 총 8개 부문, 20점 선발
- 평가항목 : 국내산 원료 사용 여부 등 서류심사, 외부전문가의 맛·향·색상 등 관능심사

▶ 2016년도 농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 선발

- 신청기간 : 6. 22. ~ 7. 17.(4주간)
- 신청자격 : 농업기계운전, 수리요원 근무 희망자(대상자) 및 필요 업체
 - 대상자 : 현역 대상자(보충역 소집대상자) 중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 업체 :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 등 병무청 지정 업체

▶ 대학생 농업·농촌 6차산업화 사업모델 공모전 개최

- 목 적 :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농업농촌에 접목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농업 6차산업화 사업모델 발굴
- 참가자격 :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팀원 3~5명
- 내 용 : 농업과 2, 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5개 팀 선정
 - 추진절차 : 접수(6.8~7.1), 인터뷰평가(7.9~10), 모의크라우드펀딩대회(7.27~8.19), 최종 평가(8.28)
- 접수방법 : 농식품부 6차산업 전문 사이트(<http://www.6차산업.com>) 접수
- 선정특전 : ① 포상(장관 5, 실용화재단 이사장 5), ② 역외창업 보육사업 지원, ③ 창업 시, 실제 크라우드 펀딩 연결, ④ 특허취득지원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6. 22.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6/22)	전주 (6/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2,600	41,200	↓ 6.6	↓ 3.4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38,200	142,000	195,713	↓ 2.1	↓ 29.0
	고구마(밤)	10kg	36,800	30,200	31,520	33,000	34,587	↑ 11.5	↑ 6.4
	감자(수미)	20kg	29,400	32,000	57,240	19,000	22,347	↑ 54.7	↑ 31.6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680	760	1,044	443	472	↑ 53.5	↑ 44.1
	양배추	10kg	7,800	11,000	10,300	4,200	5,255	↑ 85.7	↑ 48.4
	오이(다다기계통)	15kg	23,333	24,333	21,533	21,583	25,096	↑ 8.1	↓ 7.0
	애호박	8kg	12,200	10,400	11,000	11,750	12,077	↑ 3.8	↑ 1.0
	토마토	10kg	16,200	17,000	23,960	14,350	15,473	↑ 12.9	↑ 4.7
	열무	1kg	1,550	1,550	1,396	893	1,052	↑ 73.6	↑ 47.3
	당근	20kg	30,400	29,600	28,400	33,000	32,880	↓ 7.9	↓ 7.5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60,000	780,667	↑ 24.2	↑ 5.0
	풋고추	10kg	38,200	41,200	45,080	38,000	34,353	↑ 0.5	↑ 11.2
	마늘(난지)	10kg	40,400	38,000	35,400	27,850	34,172	↑ 45.1	↑ 18.2
	양파	1kg	920	820	704	470	703	↑ 95.7	↑ 30.9
	대파	1kg	2,500	2,480	2,080	1,160	1,453	↑ 115.5	↑ 72.1
	파프리카	5kg	14,800	15,400	21,920	19,150	21,987	↓ 22.7	↓ 32.7
	멜론	8kg	26,200	26,400	28,960	23,900	31,277	↑ 9.6	↓ 16.2
	방울토마토	5kg	13,400	14,600	18,720	10,250	12,740	↑ 30.7	↑ 5.2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7,800	67,800	66,800	92,000	81,383	↓ 26.3	↓ 16.7
	배(신고)	15kg	39,600	39,600	41,040	61,350	56,605	↓ 35.5	↓ 30.0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6/22)	전주 (6/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4,000	558,333	↓ 0.4	↓ 4.7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42,000	358,333	↓ 5.0	↑ 17.2
	새송이버섯	2kg	8,400	8,400	8,400	8,550	7,948	↓ 1.8	↑ 5.7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501	6,592	6,533	6,463	6,021	↑ 0.6	↑ 8.0
	돼지고기(삼겹살)	100g	2,317	2,348	2,191	2,189	2,037	↑ 5.8	↑ 13.7
	닭고기	1kg	5,528	5,178	5,276	5,749	5,604	↓ 3.8	↓ 1.4
	계란(특란)	10개	1,936	1,939	1,987	2,002	1,850	↓ 3.3	↑ 4.6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7	2,296	-	↑ 11.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6. 22.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821 천원	4,703 천원	4,266 천원	↑ 2.5	↑ 13.0
	거세	6,196 "	6,036 "	5,551 "	↑ 2.7	↑ 11.6
송아지 (6~7월)	암	2,483 "	2,455 "	1,754 "	↑ 1.1	↑ 41.6
	수	2,997 "	2,964 "	2,623 "	↑ 1.1	↑ 14.3
육우(600kg)		3,409 "	3,365 "	2,663 "	↑ 1.3	↑ 28.0
젖소수송아지(7일령)		198 "	198 "	16 "	-	↑ 1137.5
돼지(110kg)		467 "	476 "	481 "	↓ 1.9	↓ 2.9
육계(원/kg)		1,375 원	1,311 원	1,583 원	↑ 4.9	↓ 13.1
계란(원/특란10개)		1,253 원	1,293 원	1,401 원	↓ 3.1	↓ 10.6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833 원	-	↓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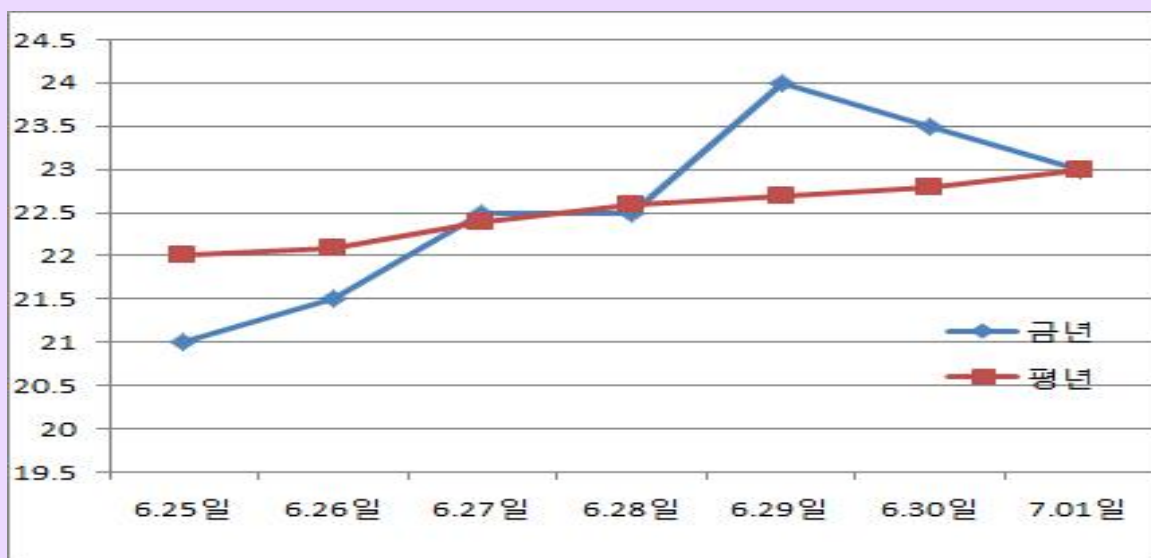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날 씨 (강수량 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균(계)	22.6	22.5	0.1	25.1	26.0	-0.9	20.0	19.9	-0.3	
6. 25.(목)	21	22	-1	22	25.7	-3.7	20	19.4	-0.6	비 (15mm)
6. 26.(금)	21.5	22.1	-0.6	23	25.7	-2.7	20	19.5	-0.5	비 (10mm)
6. 27.(토)	22.5	22.4	0.1	25	26	-1	20	19.7	-0.3	맑음
6. 28.(일)	22.5	22.6	-0.1	26	26.1	-0.1	19	19.9	-0.9	맑음
6. 29.(월)	24	22.7	1.3	27	26.2	0.8	21	20	1	맑음
6. 30.(화)	23.5	22.8	0.7	27	26.2	0.8	20	20.3	-0.3	맑음
7. 01.(수)	23	23	0	26	26.4	-0.4	20	20.5	-0.5	맑음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C)>

2. 농산물 재배 동향

풋고추·수박 재배 동향

□ 풋고추 6월 정식면적 작년과 비슷, 7월은 증가 전망

- 6월 정식면적은 주 정식지인 강원 홍천과 정선, 인제에서의 면적 변화가 크지 않아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정식면적은 6월과 달리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은 호남·충청지역에서 여름재배가 시작되는 시기로 전남 담양과 화순에서는 작년과 비슷하게 재배를 이어가려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와 장성, 충남 부여에서는 작년 출하가 높은 시세(11월부터)의 영향으로 정식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8월 정식면적은 주 정식지인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와 영암, 충남 부여에서의 면적 변화가 크지 않아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박 정식면적 감소세 전망

- 6월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충북 음성에서 대추형 방울토마토 등 타 작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아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7~8월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3%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부여·예산, 충북 음성 등의 충청지역에서 작년 출하가 가격 약세로 정식의향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축산물 : 돼지, 육계

○ (돼 지)

- 등급판정 마릿수 감소로 6월 지육 가격 5,900~6,100원/kg 전망

○ (육 계)

- 도계 마릿수 증가로 6월 육계 산지가격 1,300~1,500원/kg 전망

과 채 : 오이, 애호박

○ (오 이)

- 취청오이 6월 가격은 출하량 적어 작년보다 높은 상품 50개에
1만 4천~1만 6천원 전망

○ (애호박)

- 6월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줄어 작년보다 높은 상품 20개에
1만~1만 3천원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매실 수급 동향

○ (양 파)

- 재배면적 : 9,171ha(전년 대비 24.1% 감, 평년 대비 19.3% 감) - 전국의 51%
- 숙기별 : 조생종 1,493(16%), 중만생종 7,678(84%)
- 출하동향 : 8,530ha(전체 면적 9,171ha의 93%)
- 도매시장 가격('15.6.16.현재, 상품기준)
 - 양파 : 966원/kg(전년 382원 대비 153% ↑, 평년 817원 대비 18% ↑)

○ (마 늘)

- 재배면적 : 5,425ha(전년 대비 26.4% 감, 평년 대비 32.8% 감) - 전국의 26%
- 품종별 : 남도 4,232(78%), 대서 1,031(19%), 기타 162(3%)
- 출하동향 : 5,370ha(전체 면적 5,425ha의 99%)
- 도매시장 가격('15.6.16.현재, 상품기준)
 - 마늘 : 3,800원/kg(전년 2,680원 대비 42% ↑)

○ (매 실)

- 재배면적 : 3,937ha(전년 3,844ha 대비 2.4% 증) - 전국의 5,700ha의 69%
- 시군별 : 광양 1,342, 순천 1,302, 곡성 606, 구례 215, 기타 472
- 출하동향 : 2,362ha(전체 면적 3,937ha의 60%)
- 도매시장 가격('15.6.16.현재, 상품기준)
 - 매실 : 23,687원/10kg(전년 16,534원 대비 30.2% ↑, 평년 32,299원 대비 36.4% ↓)

* 출처 : 전라남도

5. 전남 시·군 농정동향

■ 해남 블루베리 맛 보세요

- 해남 블루베리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 해남군(군수 박철환)에 따르면 올해 40여 농가가 33ha(시설하우스 1ha)의 면적에서 40톤의 블루베리를 생산, 10억여원의 판매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해남산 블루베리는 풍부한 일조량과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해풍으로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또 친환경으로 재배돼 생과로 먹기 적합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진해 직거래를 통해 전량이 소비될 정도로 고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 올해 군은 방조망 시설과 점적관수시설, 블루베리 선별기 등을 지원하고 ‘아이눈블루베리’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를 제작 지원 한다. 또 블루베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맞춰 기존의 블루베리 보다 황산화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시범재배도 적극 추진한다.
- 또한 이달 중으로 블루베리 주식회사를 설립해 출범할 계획으로, 농가 전체의 공동선별과 출하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블루베리 주식회사에서는 향후 급냉시설을 갖춰 연중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가공시설를 통한 음료 등의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 5월말 시작된 수확은 오는 8월말까지 이어지며 가격은 kg당 25,000원에서 30,000원이다.
- 군 관계자는 “블루베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체 구성을 통해 공동브랜드 출하와 함께 가공식품 연구에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과 항암, 심혈관계 질환 개선 등 다양한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닷컴

■ ‘전국1위’ 대숲맑은 담양쌀 진가 발휘

- 서울 노원구와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납품 MOU 체결, 2년간 4천여포 납품 -
-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 1위, Love 米 인증패 수상에 빛나는 ‘대숲맑은 담양쌀’이 서울시 노원구와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판로개척에 청신호를 밝혔다.
- 10일 담양군과 금성농협 따르면 최근 서울 노원구와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친환경 쌀 공동구매 공급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20kg 4천여포, 시가 2억3천만여원 상당을 납품한다.
- ‘대숲맑은 담양쌀’은 전국 친환경 브랜드쌀 30여개 업체가 참가한 노원구 학교급식 친환경쌀 납품경쟁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식미평가, PPT설명평가 등 3단계의 평가과정을 모두 통과해 최종 5개 업체에 선정됐다.
- 특히 마지막 3단계 평가는 노원구 내 영양사와 학교급식 관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의 생산과정과 차별화된 특·장점을 설명하는 3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밥솥에 번호를 부착해 가장 맛있는 솥에 동그라미를 부착하는 블라인드 평가방식의 식미 평가가 진행됐다.
- 이에, 담양군과 금성농협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영산강 시원지의 깨끗한 농업용수와 비옥한 농토, 풍부한 일조량 등 담양만의 청정 자연을 활용해 조성된 친환경쌀 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대숲맑은 담양쌀의 차별화된 재배과정과 도정관리, 품질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부각시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은 대숲맑은 담양쌀이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입어 수도권 학교급식용 쌀시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현재 수도권 145개교에 학교급식 친환경 쌀을 납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품질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금성농협 RPC의 매출확대는 물론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광범위한 노력의 결과로 대숲맑은 담양쌀은 지난해 전국 12대 브랜드쌀 평가 1위는 물론 2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쌀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러브 米 인증패를 수상하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수도권을 비롯해 판매영역을 전국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 출처 : 무등일보

■ 나주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 호평

- 식사 해결 이웃 정 나누기 일거양득...대상 마을 증가 -

- 나주시가 시행하는 ‘농번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사업’이 호평을 받으면서 대상 마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이 사업은 농번기 바쁜 일손을 덜어주고 주민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나이가 드신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등 새로운 마을 공동체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공동 급식시설을 갖춘 마을에 음식을 준비할 조리인력과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번기에 주민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해결하고 이웃 간 정도 나누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 나주시가 지난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했으며 시는 지난 달 말 부터 관내 15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진행중이다.
- 추수 시기인 10~11월에도 공동 급식 사업이 이어진다.

- 대상 마을만도 300곳이 넘는 등 주민 수가 적어 공동급식 어렵거나 급식장소가 여의치 않은 소규모 마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마을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 이 공동급식 사업은 2010년 60개 마을에서 지난해 288개 마을, 올해는 310곳을 예상하고 있다.
-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 마을 공동급식 사업이 고령화 추세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일손 절약과 어르신들의 돌봄문화 조성 등 농촌마을의 복지 사업의 하나로 뿌리내리고 있다"며 "반응이 좋아 대상마을,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무등일보

■ 목포시 농업지원센터 삼향동주민센터에 등지

- 목포시는 농업지원센터가 삼향동 주민센터 2층에 등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 농업지원센터는 시청 농업산업과에서 추진했던 농업업무와 관련한 농림사업, 농지전용협의, 농지원부 발급 등 23개 업무와 각종 민원 처리를 담당한다.
- 목포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토와 농업인구가 감소하자 용당동 농촌지도소를 대양동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전했으며, 이후 1998년 공식 폐쇄했다.
- 도시농업의 무한경쟁에 대비한 목포시 농업지원센터의 부활은 17년만이다.
- 목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본청에서 농정 업무를 추진했으나 도시 농업의 무한경쟁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박홍률 시장이 농업인들의 건의를 수렴해 농업지원 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 출처 : 무등일보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흰우유 중국 수출, 1년 만에 재개

- 지난해 5월부터 중단된 국내산 흰우유(살균유)의 대중국 수출이 재개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에 이달 2일자로 매일유업(상아공장)과 연세우유(아산공장), 서울우유(거창공장)를 생산업체 및 품목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흰우유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살균유가 자국 내 기준으로는 멸균유라면서 수입을 중단시켰다. 이후 자국 기준의 살균 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검증 등의 추가적인 기술검토를 우리 측에 요구했었다.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업계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중국 관계 당국과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올 1월 말 중국 정부의 국내 유업체 현장 실사가 진행된 이후, 넉 달 만에 우리 흰우유의 중국 수출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등록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는 수출용 포장지 제작 및 생산일정 조정 등 사전 준비 후 이르면 이달부터 흰우유의 중국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 정병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이번 흰우유의 중국 수출 재개를 계기로 우리 유제품이 중국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유제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 현지 홍보 및 판촉행사 개최를 비롯한 다양한 수출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우리 밤, 대만시장서 수요 지속 증가

- 크기 큰 신선 비탈각 밤 현지서 각광·인지도 높일 수 있는 시식행사 등 홍보 활동 필요 -

- 대만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우리 신선 비탈각 밤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삼계탕 등 건강식과 연계한 마케팅과 요리법 소개 등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만 사무소에 따르면 현지에 공급되는 우리나라 밤의 대부분은 신선 비탈각 밤으로, 최근 들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으며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만 재정부의 관무서가 발표한 '대만 밤 연간 수입 현황'에서, 우리나라 밤 수입실적은 2012년 9,000달러에서 2013년 3만3,000달러, 2014년 16만9,000만 달러로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중국산 위주로 유통되는 대만 수입 밤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0.8%에서 지난해 3.4%로 상승했다. 또한 올 1~2월 동안 대만의 우리나라 밤 수입실적은 21만8,000달러로 이미 지난해 수입실적을 훨씬 뛰어 넘은 상황이다.
- 이처럼 우리나라 밤의 대만시장 공급이 꾸준히 확대된 이유는 현지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밤에 비해 크기가 커 차별화되기 때문. 아직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주로 현지 백화점과 고급 식료품 마켓을 중심으로 우리 밤이 고가에 거래되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조금씩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aT 대만 사무소는 우리 밤의 지속적인 대만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인지도가 있는 삼계탕 등 건강식과 연계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아직 대만 소비자들이 생밤을 먹는 것을 생소하게 여기는 만큼 군밤과 찐밤 등의 다양한 시식행사를 통해 요리법을 소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포장에도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우리 밤의 일부에서 밤벌레가 발생하거나 싹이 나서 반품되는 사례가 있는 때문. 이에 부패방지에 효과적인 포장법 개발을 통해 대만 수출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aT, “해외 농식품 시장 정보 제공해 드립니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해외시장 개척을 준비하는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해외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해외시장 맞춤 조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aT에 따르면 국내 다수의 중소 수출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해외 동향 파악이다. 이는 식품대기업과 비교해 해외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시장조사에 따르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aT가 중소 수출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맞춤 조사’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하고 있다.
- 올해 aT가 지원하는 해외시장 맞춤조사 범위는 총 8개 항목으로 △시장통계(시장규모, 수출입 현황 등) △시장 트렌드(현지 식문화, 소비 트렌드 등) △경쟁 제품 현황(경쟁 제품 점유율, 가격, 중량 등) △유통 구조 △통관·검역(절차, 서류, 거부사례 등) △관세 및 세금(관세율, 부가가치세 등) △인증 및 허가등록 △라벨링 및 식품첨가물(규정, 샘플 사진) 등이 있다.
- 조사기간은 착수 후 평균 2주 내외며, 관련 시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신청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단, 일부 취약 국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항목 수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해외시장 맞춤조사 정보 제공은 신청업체당 2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1회당 최대 8개 항목까지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다.
- 해당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수출업체는 aT 농수산물수출지원

정보 웹사이트 (www.kati.net)에서 수출지원정보 메뉴를 클릭한 후,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출업체를 위한 지원사업 특성상, 관련기관과 학계, 학회, 재단, 학생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농식품부, 중국 홈쇼핑 채널 통해 농식품 수출확대 박차

- 농식품부, CJ 중국본사와 현지 홈쇼핑 및 온라인 채널 활용 농식품 수출확대 MOU 체결 -

- 농림축산식품부가 CJ 중국본사와 우리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CJ 중국본사에서 진행된 ‘농식품부-CJ 중국본사 간 MOU 체결식’에는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박근태 CJ 중국본사 대표, 이필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국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와 CJ 중국본사는 CJ의 TV홈쇼핑 및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그동안 중국 CJ홈쇼핑에서 판매된 우리 농식품은 참치캔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됐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CJ중국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국 홈쇼핑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농식품을 적극 발굴해 수출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MOU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농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CJ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출처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7.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전남농기원, 여주 농가특새 소득 유망작목 육성

-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최근 건강 기능성 채소로 주목받으면서 재배 면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토속 전통 아열대채소인 여주(쓴오이)를 새로운 농가 특새 소득 유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 기술원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여주재배는 2010년부터 1ha 시작한 이후 지난해 10.5ha, 올해는 해남·강진·장흥·신안·여수 등을 중심으로 18개 시·군에서 43.5ha가 재배되고 있다. 10a당 조수익도 600만~1000만원 정도로 매우 높아 아열대채소중에서 콜라비와 함께 재배면적이 가장 큰 품으로 증가하고 있다.
- 기술원은 소득 유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기능성이며 다수성 품종선발, 재배기간에 맞는 유인 덕 설치방법 등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 여주는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으로 농가에서는 품종특성을 몰라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술원이 국내 재배 품종별로 생육정도, 암꽃과 수꽃의 개화특성, 수량성, 병해충,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 보급함으로써 농가 생산성을 20% 이상 향상 시킬 수 있게 됐다.
- 또 여주는 덩굴성 식물로, 재배를 위해서는 유인 덕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농가는 철재 파이프와 그물을 이용해 유인 덕시설을 만들어 재배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기술원은 수확기간이 2개월 정도의 단기재배에는 울타리식, 3~5개월 정도의 장기재배에서는 아취형 유인 덕 시설을 개발,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18% 이상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여주 홍수 출하기를 회피할 수 있는 1년 2기작 재배의 새로운 작형 연구 개발도 추진중이어서 좋은 연구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 손동모 연구관은 "지역의 여주 재배 전망은 기후적으로 따뜻해서 재배기간이 길고 시설과 노지재배가 모두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재배기술 수준도 높아 경쟁력이 충분해 타 지역보다는 매우 밝다"고 말했다.
- 이어 "현재처럼 여주 이용이 약용으로만 소비된다면 언젠가는 소비의 한계점에 도달 할 위험이 있으므로 꾸준히 생과로 소비할 수 있는 요리방법과 가공품 개발을 통해 여주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확산에 많은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특히 여주는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 및 관리노력이 비교적 적게 들어 농촌의 고령자와 도시에서 귀농한 은퇴자들에게 알맞은 실버 맞춤형 작목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관비 재배 시설애호박, 생육 단계별 양분 관리 기술 개발

- 질소 비료 사용량 20%~25% 줄고 수량 6%~8%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반축성재배하는 시설애호박의 관비 재배 시 양분 흡수 양상을 분석해 생육 단계별 양분 관리 기술을 개발했다.
- 지금까지 시설 재배 작물에 대한 비료 사용량은 '토양 재배 기준'을 따랐으나, 관비 기술 확대에 맞춰 관비 기준 양분 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분석 결과, 생육 기간 중 시설애호박의 질소, 인산, 칼리 흡수량은

토양 재배 시 질소요구량의 0.75배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양분 흡수는 생육 초기에서 중기까지 활발한 반면, 생육 후기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열매로 이동하는 양분의 양이 급격하게 느는 시기는 열매가 달린 직후이며, 작물 부위별 양분 함량은 열매, 잎, 줄기, 뿌리 순이었다.
- 이에 따라 관비 재배 시설애호박의 양분 흡수량을 고려해 생육 단계별 양분 요구량을 산정한 결과, 1ha당 질소 172kg, 인산 133kg, 칼리 327kg으로 나왔다.
- 이번 양분 관리 기술 개발로 질소 비료 사용량은 20%~25% 줄고, 수량은 6%~8% 늘었다. 또, 농가 소득은 7%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하상건 연구관은 “시설재배지 관비 재배 양분 관리 기술을 이용하면 생산량은 늘고 경영비는 줄어 앞으로 관비 기준 비료 사용량을 설정하는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단감나무 여름전정 단감 품질 높인다!

- 웃자란 가지 관리 잘하면 이득 -

- 최근 단감재배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나무키 낮추기가 일반화되면서 여름철 웃자람가지(도장지)가 과다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장지 발생이 심하면 햇빛 투과가 나빠지고 과실 생장이 나빠져 고품질 단감 생산이 불리해진다.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은 여름철 소홀할 수 있는 도장지에 관한 관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나무 세력을 안정시키고 과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 단감나무는 세력이 강한 나무일수록 도장지가 많은데, 이들 가지를 일시에 모두 제거할 경우 새가지가 다시 발생하거나 이듬해 결과모지 확보가 곤란해져 해마다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도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에서 개발한 여름철 도장지 관리기술은 도장지를 일시에 제거하지 않고, 세력이 강한 것은 일부 솎아낸 후 나머지는 선단이 수평 이하가 되도록 유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나무 세력이 안정되고 햇빛 투과도 좋아져 과실 품질을 좋게 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유인한 일부 가지는 내년엔 결과모지로 사용할 수 있어 착과량이 증가하고, 세력이 안정되어 도장지 발생도 줄게 된다. 특히 과실이 달리지 않은 빈 공간이 많은 나무에서 도장지 밑 부분(기부)을 비틀어 철사나 E자형 클립 등으로 빈 공간 쪽으로 유인해 두면 가지 선단에 꽃눈이 형성되어 다음해 충실한 결과모지가 된다. 이때 긴 도장지는 중간 부위를 꺾어 길이를 조절하면 된다.
- 유인 작업은 도장지 기부가 굳어지면 부러지기 쉬우므로 갈색으로 변하기 전인 6월 하순~7월 상순까지 마쳐야 한다. 새로운 도장지가 계속 발생할 경우 7월 하순까지 여러 번 나누어 제거하되, 햇빛 투과와 통풍에 방해되지 않는 가지는 그대로 두어도 된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 무더운 날씨 돈사 습도 위생 관리 필수

- 도 농기원, 고온스트레스에 의한 질병 생산성 감소 주의 당부 -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때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돈사 습도관리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고온이 계속되는 요즘 돈사 내 온도상승과 더불어 습도의 불균형으로 생산성이 감소하고 고온스트레스에 의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다.

- 지방층이 두꺼운 돼지는 땀샘이 퇴화돼 피부에서 열 발산이 잘되지 않아 고온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습도를 낮출 수 있도록 환풍기를 가동해 돈사 내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 또 급수기와 사료급여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과 청소를 실시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함은 물론, 남은 사료는 부패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 특히 축사 내·외부에서 모기 등 해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방역을 실시하는 등 축사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도 농업기술원 강환용 지도사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질병 발생 및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소독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충남농업기술원

■ 계속되는 가뭄에 따른 농작물관리 요령

- 충북농업기술원, 농작물 가뭄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 -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중)은 금년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이 24.7mm로 평년의 25% 수준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해갈 시까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농작물관리 요령 및 가뭄대책 영농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 중점기술 지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요즈음 들어 가끔씩 소나기가 내리고는 있으나 그동안 강수량 부족과 폭염으로 토양 수분함량과 대기 중 습도가 모자라게 되어 식물체 내에 수분이 부족해 정상적 생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밭작물은 가뭄을 대비해 피복 자재를 통한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 억제는 기본으로 실천해야 하며, 가뭄 상습지나 용수부족지 등 취약지점에는 가뭄에 강한 작목을 선택하여 재배해야 한다.

- 작물별 생육 상태도 확인하고 관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물을 대주며, 헛골 피복(부직포나 농산부산물 등)을 통한 수분 증발 억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관정 시설과 주변 저수지가 없어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사지의 경우 물 수송 가능 차량과 분무기를 활용한 관수를 통해 가뭄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고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고추 등 노지채소류는 칼슘 흡수 저해로 각종 생리장해를 유발하고 심하면 열매가 무르고 2차 병해 피해를 받게 되므로 칼슘제를 엽면시비하고, 진딧물 등 병해충을 예찰해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 특히 가뭄 피해 발생으로 생육 회복이 어렵거나 작물 재배를 하지 못한 포장은 대체 작물로 콩이나 메밀 등 후기 작물 종자를 확보하여 대파(다시 파종) 준비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 지금까지 도 농업기술원은 시군별로 양수기 1,546대를 지원하였으며, 양수 장비를 비롯한 각종 농용 장비의 고장에 대비 농기계 순회 수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가뭄 극복을 위한 스프링클러, 호스 등도 지원해 왔으며, 도단위 영농현장기술지원단 11개반 44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충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김영석 과장은 “지역별 기상상황과 농작물 생육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가뭄 해갈 시까지 가뭄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충북농업기술원

8. 정책동향

◆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 우열을 가린다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를 발굴·홍보하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2015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선발 분야는 △원예농산물 △전통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일반식품·외식 등 4개 분야이며, 6월 26일까지 시도(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농협, aT, 식품관련협회 등에서 추천받아 후보 브랜드를 모집한다.
- 각 지역의 우수한 농식품 브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언론과 농정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공모에 참가한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인지도평가, 현장평가, 제품평가 등을 포함하는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 * 추진일정 : 1차평가(서류평가, 6.29~6.30) → 2차 평가·선정(종합평가, 7.1~8.18) → 파워브랜드 시상 및 전시·판매(9월초)
- 금번에 선정되는 4개 분야 22개 농식품 파워 브랜드에 대해서는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15 대한민국식품대전’ 기간 중에 대통령상 등 시상과 함께 상금도 주어진다.
 - * 시상내역 : 총 22점(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10)
- 농식품부는 최종 선발된 파워브랜드 제품들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한 홍보, 직거래 장터에서 전시·판매,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농식품 브랜드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참고로 '14년도에 선정된 22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전체에서 16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선정 업체들은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 '14년도에 선정된 경기도 안성시 '일품김치'의 경우 매출이 '13년도 대비 50%, 광주광역시 '참든야채수'는 52%, 전라남도 순천의 '자연의 지혜(함초)'는 77% 증가된 바 있다.

* '14년 선발된 브랜드 : 의성마늘(경북의성), 기차타고 곡성멜론(전남), 대숲담 양딸기(전남), 괴산찰옥수수(충북), 메이빌포도(충북), 불로초 감귤(제주), 예담 채 딸기(전북), 거문도 해풍썩(전남), 산수향마늘(충남), 프레샤인 사과(충주), 예천청결 고추(경북), 파주개성 인삼(경기), 파주 장단콩(경기), 하림 즉석삼계탕(전북), 아름찬 김치(서울), 동강마루 고춧가루(강원), 일품 김치(경기), 들안에 된장(경기), 고마우미미니고구마(전북), 참든 야채수(광주), 자연의 지혜 함초(전남), 달콤나무 고로쇠(전북)

○ 농식품부 관계자는 “브랜드 파워는 세계 농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지속적으로 우수 농식품 브랜드를 선발하여 우리 농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종자원 전남 제2정선센터 부지 영암군으로 확정

- 2017년까지 2천톤 규모의 종자정선센터를 신축하여 정부 버 보급종 공급율을 70% 까지 확대 계획 -

□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전남 제2정선센터 부지를 영암군으로 확정하고 2017년까지 2천톤 규모의 현대화된 정선시설을 신축하여 고품질 벼 보급종 공급율을 7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금까지 전남도는 쌀 주산지로 고품질 종자에 대한 농업인 수요에 비해 정선시설 부족으로 종자공급율(47%)이 낮은 실정으로 정선시설의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 '14년 벼 보급종 공급율 : 전국 평균 58%(강원 98, 전북61, 전남 47)

□ 그동안 전남 제2정선센터 최적 부지 선정을 위해서

○ 전남도에 후보지 추천을 의뢰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11개 시·군 중 6개 지자체를 후보지로 선정 하였고,

* 후보지 : 강진, 담양, 영암, 장흥, 화순, 해남(가나다 순)

○ 『정선센터 신축 부지 선정위원회』를 육종, 건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최종심의를 거쳐 영암군을 대상지로 최종 확정하였다.

* 유치계획 발표(5.19), 현지실사(6.4~5) 및 최종심의위원회(6.11)를 개최하여 종자 생산 및 수송여건, 운영효율성 등 5개 항목 평가

○ 앞으로 대상지로 확정된 영암군과 「업무협약 체결(6월)」, 「신축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7~12월)」를 거쳐 '17년 말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이번 정선센터 신축을 통해 벼 보급종 공급율을 70%로 확대할 수 있게되어 쌀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국산쌀 품질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내년부터 영암군에 정부 보급종 생산단지를 연차적으로 600ha까지 확보하게 되면 지역농업인의 소득 증대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기한 연장

- 당초 3.2~6.15에서 7.10일까지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가뭄 확산에 따른 모내기 지연 등 농번기 상황을 고려, 아직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당초 6.15일까지에서 7.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점검 및 직불금 집행 등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농가들이 연장기한 내에 직불금을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2025년 GAP 농산물 재배 면적 50%로 확대"

- 농식품부, GAP 민관 추진협의체 제2차 회의 -

○ 정부가 2025년까지 GAP(농산물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재배 면적을 50%까지 확대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GAP에 대한 소비자·농업인 인식 제고와 소비촉진 유도를 위한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비롯해 '지자체 GAP 추진협의체 구성'은 물론 소비자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 홍보에 나선다. GAP 농산물은 지난해 전체 면적대비 3.5%(5만9000ha)로 정부는 2019년 35%, 2025년 50%로 확대한다.

○ 농식품부는 10일 세종청사에서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GAP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GAP 민관 추진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성우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제1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2015 GAP KOREA 포럼' 개최 및 '지자체 GAP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 박 과장은 “경진대회는 GAP 확산과 관심도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GAP우수 농가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GAP 이행 농업인이 따라 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확산시키면서 지역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GAP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GAP확산체계를 정립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 경진대회는 6월 30일까지 시·군·구별로 우수사례 1건씩 제출하면 시·도에서는 7월 20일까지 자체 심사를 거쳐 도별 4건, 특광역시·제주도 2건 및 각도 4건씩 선발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8월까지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10점을 선발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 이와 함께 ‘2015 GAP KOREA’는 6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포럼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안심 농산물과 GAP제도 발전 방향 및 해외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24~26일까지 GAP 인증 농산물 체험관을 운영하고, 단체급식 관계자 GAP 마스터 교육, 대량 급식관계자 대상 GAP 설명회 등을 갖는다.
- 권오전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장은 ‘GAP 교육·컨설팅 계획’을 통해 2019년 GAP 재배 35% 달성을 위해 GAP 농업인 및 전문인력 양성 방향을 제시했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농가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컨설팅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이다. 교육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농업인 교육 50만 명, 전문 인력 2700명, 소비·유통업자 10만 명에게 실시한다. 컨설팅은 농업인 8만 명, 컨설턴트 300명 육성도 아울러 추진한다.
- 고영직 농협중앙회 청과사업단 팀장은 ‘GAP 농산물 취급 활성화 계획’에서 농협 판매장을 통해 2017년 GAP 농산물 취급액 1600

억 원을 제시했다. 올해는 기반조성 단계로 청과 브랜드인 ‘뜨라네’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산지지도·밭굴로 연중 공급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2016년에는 공급확대 단계로 학교급식, 군납 등 GAP 농산물 대량 거래처 공급을 추진하고, 매취·저장사업 시범실시에 나선다. 2017년은 시장정착 단계로 온라인 등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고, 산지지도·밭굴을 지속한다.

- 토론에서 남기웅 한경대 교수는 “GAP 인증은 생산농가의 경우 필요성에 따라 신청하는데 단체 인증은 농가가 인증 받은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따라서 농협이 ‘내부심사제도’를 도입해 30~40명 단위로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철재 농협중앙회 회원경제지원부 팀장은 “내부심사제도 대안으로 ‘산지유통관리자’를 육성해 책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지역농협 소속으로 친환경·GAP농산물 등의 유통을 책임지는데 현재 128명에서 2020년 500명까지 늘린다.
- GAP 농산물 유통에서 윤재수 홉플러스 과장은 “GAP농산물 취급 확대를 위해 영농조합 등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16개 아이템을 갖고 협력업체 9개, 115농가와 연계해 GAP 추부깃잎과 알타리, 일반 토마토 등을 취급한다”며 “내년에는 품목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 권태현 GAP생산자협의회장(서포항농협 조합장)은 “GAP농산물의 경우 서포항농협에서 현재 500농가가 사단법인으로 활용하는데 연말까지 900명으로 늘리겠다”며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9. 해외 농업정보

◆ 중국, 농가지원정책 점검필요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지속가능한 농업분야를 창조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곡물에 대한 높은가격을 지불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밀과 쌀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두 번째로 큰 옥수수 재배국인 중국은 국가비축 목적으로 세계가격수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국내곡물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지원 및 주요 곡물의 자급률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중국에 중대한 재정부담 및 남아도는 곡물로 인한 저장고 과잉현상을 초래하였다. 현재 옥수수 재고물량은 연간 국내 옥수수 소비량의 80%를 능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소장인 Fan Shenggen은 “중국은 현재 덩에 갇혀있다. 중국정부는 농가로부터 매우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되팔지 못해 곡물이 창고에 쌓이게 되어 높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정부는 최근 면화 및 대두에 대한 비축제도를 중단하고 농가들에게 수확량에 기초한 직접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 고문들과 가까이 일하고 있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 소장 Fan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실수’ 라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고 덧붙였다. 중국은 보조금 제도에서 벗어나 소득지원제공 및 농가들이 농가규모를 확대하거나 혹은 농업분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Fan은 중국 고위급들 사이에서 모든 주요 곡물에 대한 자급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식에 해당하는 곡물의 식량안전 확보에만 주목하도록 중국의 농가 정책 변화필요성이 서서히 인식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중국의 새로운 2016-2020년 5개년 계획에 통합될 예정이며 현재 초안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Fan은 중국의 농업을 환경지속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장관들 간 협동부재로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최근 곡물수확 증가는 농가들의 물부족 악화에 따른 지하수 과도사용 및 심각한 오염과 직결되는 비료의 남용 등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Fan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료 가격 및 물 사용료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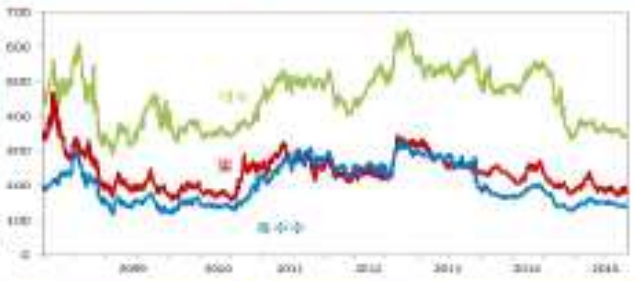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6. 17.(시카고 선물거래소)

옥수수, 대두가격 USDA 곡물 등급 발표에 가격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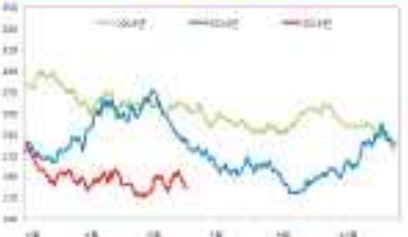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6.16)	전일대비	전일평균 (15.5)	2014 평균
밀	179.53	▼0.1%	180	216
옥수수	139.36	▲1.7%	141	164
대두	351.78	▲2.1%	352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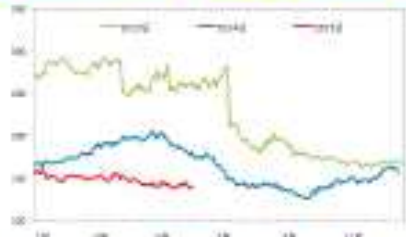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측의 거래되는 밀(적색연결립:SSW), 옥수수, 대두의 단위물(밀, 옥수수, 대두=7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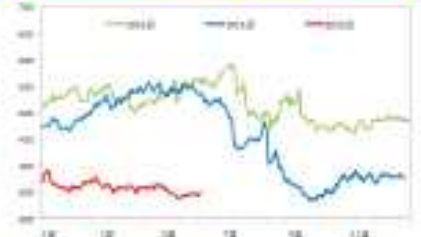
밀 선물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갈루로 인한 미국 남부의 겨울 밀 수확이 다소 저체되고 있고 수확량이 1%를 예년의 절반 수준인 이는 과잉 밀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세를 다소 진정시켰다는 분석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옥수수 선물가격은 지난주 미국 중서부와 남부에 내린 편비로 등급 하락이 예상되어 거래 간 대두세가 불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예상됨. 때문에 무역거래가 당혹하지는 않으나 옥수수 작황양상은 평균 추이를 유지할 것이라 미국 Water Street Solution의 애널리스트 Sudeman는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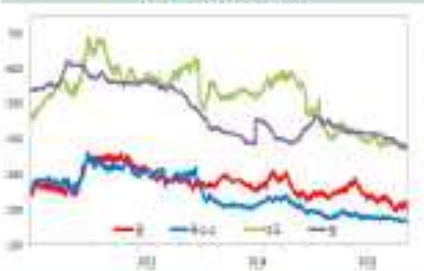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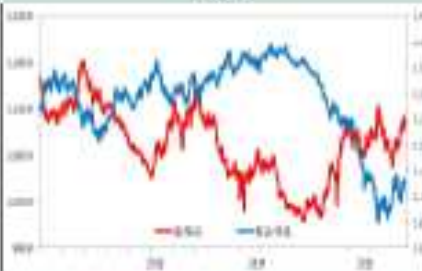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농무부(USDA)의 곡물 등급 하락 발표와 과학문화소스에 상승했다고 시카고선물거래소는 밝힘. 추수전 대두 출하가 우수 품질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주 6%에서 2% 하락된 수치임

관련동향 ▶ 미국산 밀은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위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유가는 미 멕시코만 지역 열대성 폭풍 상륙 소식, 미 원유 재고 감소 전망 등의 영향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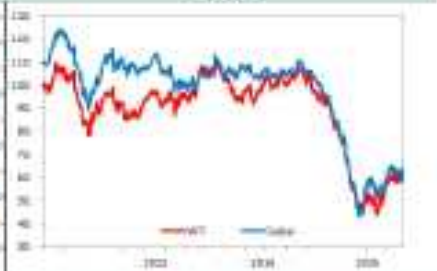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203	▼2.9%		원/달러	1116.2	▲0.5%
	옥수수	166	▼1.2%		달러/유로	1,127.9	▲0.4%
	대두	379	▲0.3%		WTI	59.97	▲0.8%
밀	371	▼0.5%	Dubai	60.46	▼1.4%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ST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7월물), Dubai(연물)
2) 기준일은 '15.6.16(곡물가격), '15.6.16(환율), '15.6.16(국제유가)이며 조르주프(국제곡물기초지, 한국은행,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업데이터를 날라게 따라 알기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고소득 농업사례

■ 전남 시설재배 장미농가 소득 가장 높아

- 농기원 분석 결과, 오이·호박·방울토마토 順 -

- 전남도농업기술원이 2014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결과, 시설재배 장미농가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54개 작목 741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다.
- 16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시설재배에서 10a(1천㎡)당 소득은 장미1천544만3천원, 오이(축성) 1천472만4천원, 호박 1천380만8천원, 방울토마토 1천323만8천원, 파프리카 1천250만1천원, 딸기(축성) 1천75만2천원, 딸기(반축성) 1천8만8천원 등이다.
- 이어 토마토(반축성) 970만5천원, 시설고추 786만2천원, 멜론(반축성) 641만4천원, 시설부추 433만9천원, 시설고추(억제) 347만원, 시설국화 263만2천원, 수박(반축성) 185만4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노지재배 작목에서 10a당 소득은 구기자 749만2천원, 블루베리 725만8천원, 무화과 672만3천원, 노지포도 439만5천원, 사과 419만9천원, 복숭아 362만9천원, 녹차 359만4천원, 유자 355만6천원, 오디 352만4천원, 참다래 297만1천원, 배 276만1천원, 봄배추 225만8천원, 단호박 221만1천원, 단감 187만5천원, 노지수박 167만2천원, 고구마 146만3천원 등의 순이었다.
- 대체적으로 일반 밭작물보다는 과수분야가 소득이 높았다. 전년 대비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24개 작목이었으며 30% 이상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시설미나리, 시설고추(억제), 봄배추, 녹차, 단호박,

오디, 쌀보리, 맥주보리 등 12개였으며, 20~30% 증가한 작목은 고구마, 축성오이, 반축성멜론, 시설호박, 포도 4개, 10~20% 증가한 작목은 가을무, 착색단고추, 유자 3개다.

- 이에 반해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30개로 예년에 비해 많았다. 20% 이상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조생양파, 시설국화, 쪽파, 월동배추, 참깨, 시설 무, 가을배추, 매실, 시설부추 등 17개로 나타났다.

* 출처 : 남도일보

■ 새콤달콤한 패션프루트<아열대 과일>...부농의 꿈 `새록새록'

- 3천305㎡ 하우스서 작년 5천만원 매출 올려 -
- 보라색으로 변하면 자연 낙과로 노동력 적어 -
- 전남농기원서 2008년 도입...지역 적응력 키워 -
- 검붉고 동그란 열매를 반으로 자르면 노란 속이 가득 차 있다. 스푼으로 속을 박박 긁어서 입에 떠넣으면 노란 과육은 새콤달콤, 검은 씨는 아삭아삭하다.
- 패션프루트(Passion Fruit)는 백향과(百香果)라고도 불리는 아열대 과일이다. 동남아시아 등 더운 곳에서 나는 이 과일이 최근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했다.
- 전남 담양군 추성로 1200에 자리한 '별에서 온 농부'(대표 최유성·35)는 패션프루트로 3천305㎡(1천100평)하우스에서 지난해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 최유성 대표는 담양의 패션프루트 홍보를 자원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다람쥐 쳇바퀴 생활이 지겨워 항상 농사를 동경하던 중 고향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겨 지난 2013년 귀농하게 됐다.

- 먼저 최 대표는 패션프루트 농사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 얘기했다.
- "패션프루트를 다른 농가가 시작한 것을 보고 무작정 시작하게 됐다"며 "지난해 첫 수확을 시작한 패션프루트 생산자들이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다"고 농사 시작 배경을 밝혔다.
- 최 대표는 "전남과학대학교 인터넷비즈니스과를 졸업하고 학과 적성을 살려 국내산 패션프루트로 '땀 흘린 농민이 돈을 버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부지런히 소문을 내고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해 농민과 소비자의 직거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 패션프루트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며 맛과 향이 매력적인 아열대 덩굴 과수로 당도(16브릭스 내외)와 산도(2.5~3.0%)가 높으며, 첫사랑처럼 잊지 못하는 백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대만에서는 '백향과'라고 불린다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
- 패션프루트는 타원형으로 대략 4~6cm, 무게는 65g 이상이고 성숙 되면 보라색으로 변해 자연 낙과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적게 드는 과수다.
- 최 대표는 "보통 사과나 배 등의 과수는 접목한 묘목을 식재해 3년 이상을 키워야 수확이 가능하지만 패션프루트는 식재당년 개화 후 50~60일이면 수확할 수 있어 단기간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또 패션프루트에는 비타민C, 카로틴, 구연산, 칼슘, 칼륨이 풍부해 식욕촉진, 골다공증 예방, 면역력 강화, 숙취해소, 피로회복, 빈혈·두통 완화에 효과가 있어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최 대표는 말했다.

- 패션프루트는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지난 2008년 최초 도입해 전남 지역 적응성 검토를 거쳐 2010년부터 일부 농가에서 재배하기 시작했고, 2012년 농촌진흥청 지원 사업으로 패션프루트 무가온 재배 기술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 또 담양, 고흥, 무안, 장흥 등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패션프루트 재배기술 개발과 지도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3년 1.5ha에서 2014년 17ha까지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패션프루트는 전남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 패션프루트는 무가온 하우스 또는 노지 재배가 비교적 쉽고 따뜻한 전남의 기후적 지리적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가 가능하다.
- 최 대표는 “패션프루트가 아직 재배법이 정착되지 않고, 대중화가 되지 않아 재배농가들은 관계기관과 재배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적으로도 가치를 논하기 어려운 작물이라는 것이 재배자들의 주된 의견이다”고 말했다.
- 최 대표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패션프루트 재배자가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고, 맛에 있어서 대중성을 갖는 만큼 몇 년 후에는 소득 작물로서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 최 대표는 “재배에 있어서는 노지재배보다는 천정개폐 하우스나 비가림시설이 효과적으로 보이고, 수확기간이 짧아 4~5년을 내다보는 나무에 비해 소득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겨울에는 얼어죽을 수 있으니 가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남도일보

11.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간(변경전) : 3. 2. ~ 6. 15. → 7. 10.일까지
 - 밭직불금 중 밭동계작물 신청완료(5.22.)
 - 쌀·조건불리직불금, 밭하계작물에 대해 신청 기간 연장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중 실제 경작자
 - ※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 신청농지가 1,000㎡미만인 자는 제외
- 지급단가(ha당)
 - 쌀직불금 100만원, 밭고정 25만원, 밭농업 40만원, 밭농업이모작 50만원
 - ※ 밭고정(모든 밭작물), 밭농업(밭재배 26개 품목), 밭농업이모작(논재배식량·사료작물)

◆ 제1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평가일정 : 시군예선(6.30한) → 도 예선(7.20한) → 본 대회(8월말)
- 응모대상 : GAP 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농산물, 임산물)
 - ※ 개별농가 단위 또는 집단 인증 농가 신청 가능
- 심사방법 : 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서류+발표) → 중앙 우수사례 경진대회
- 시상 및 시상금 : 10점(대상 1, 500만원, 금상 2, 각 300만원, 은상 3, 각 150만원, 동상 4, 각 100만원)
- 심사내용 :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창의성, 청결성, GAP이해도, 사업성과 및 자립도, 지속가능성, 경쟁력, 파급효과 등

◆ 2015년 남도 우리 술 품평회 개최

- 일시/장소 : 7. 10.(금) 11:00 ~ 17:00 / 도청 수리채
- 위탁기관 : (사)한국전통주진흥협회
- 선발부문 : 총 8개 부문, 20점 선발
 - 생막걸리 5, 살균막걸리 3, 약주·청주 2, 과실주 2, 증류식소주 2, 일반 증류주 2, 리큐르 2, 기타주류 2
- 평가항목 : 국내산 원료 사용 여부 등 서류심사, 외부전문가의 맛·향·색상 등 관능심사

◆ 2016년도 농기계분야 산업기능요원 선발

- 신청기간 : 6. 22. ~ 7. 17.(4주간)
- 신청자격 : 농업기계운전, 수리요원 근무 희망자(대상자) 및 필요 업체
 - 대상자 : 현역 대상자(보충역 소집대상자) 중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 업체 :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 등 병무청 지정 업체

◆ 대학생 농업·농촌 6차산업화 사업모델 공모전 개최

- 목 적 :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농업농촌에 접목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농업 6차산업화 사업모델 발굴
- 참가자격 :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팀원 3~5명
- 내 용 : 농업과 2, 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5개 팀 선정
 - 추진절차 : 접수(6.8~7.1), 인터뷰평가(7.9~10), 모의크라우드펀딩대회(7.27~8.19), 최종 평가(8.28)
- 접수방법 : 농식품부 6차산업 전문 사이트(<http://www.6차산업.com>) 접수
- 선정특전 : ① 포상(장관 5, 실용화재단 이사장 5), ② 역외창업 보육사업 지원, ③ 창업 시, 실제 크라우드 펀딩 연결, ④ 특허취득지원

주간
39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